

## 교통복지에 허리띠는 농어촌 지자체

100원 택시·1000원 버스·준공영제 등 지원금 매년 급증  
이용객 추이 등 장기적인 검토...종합 교통 대책 수립 시급

### 일부 시·군 준공영제 포기도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남도 내 시·군 주민들을 위해 투입되는 '교통복지 예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승객이 줄어들어 적자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유지하거나 농어촌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난립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이용객 추이, 미래 투입예산 산정 등 면밀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농어촌 교통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 등 신규 정책에 의한 예산은 물론 기존 22개 시·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먼저 민선 6기 대표적인 전남도의 교통복지정책인 '100원 택시'는 지난해 14개 시·군 362개 마을에 도입되면서 18억6300만원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여수, 담양, 구례, 장성, 신안 등 5개 시·군 120개 마을이 추가 도입하면서 2배에 이르는 37억 8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민선 6기 핵심 교통복지 공약이었던 버스준공영제 추진에도 시·군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일부 시·군은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9월 버스(준)공영제 수요를 조사해 13개 시·군의 도입 의사를 받

혀 1단계로 곡성·영암·보성·완도군이 지난 해 말, 2단계로 나주시와 장성·진도군이 지난 9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

타당성 조사 후 곡성군은 지난 1월부터 단일 운임체계인 '1000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영암군도 내년 1월부터 1000원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각각 3억원, 6억원의 군비가 들어간다. 보성군은 노선 개편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완도군은 금당면에 일단 15인승 '웃음 버스'를 운행한 뒤 2018년 1월부터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1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나주, 장성 등은 사실상 준공영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공영제에 230억~292억원, 준공영제에 108억~138억원, 장성은 43억~71억원, 2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분석되고 있다.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이나 완도군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재정 부담을 안고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여기에 올해만 도내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46개사에 모두 267억60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승객은 줄고, 오지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빛이 나는 일이다. 전남도는 전체 2053개 노선 가운데 91.7%에 달하는 1883개 노선이 적자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 차질 우려 기재부, 市 부담률 33%→50% 상향 요구

광주시 최대 현안인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업 추진의 최대 과제였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국·시비 부담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내년 예산안 미반영은 물론 올해 예산 집행도 늦추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

리지침'에 따라 세부사업들에 대해 국비 50%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시비 부담비율을 국비 50%, 시비 50%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예초 이 사업의 국비 반영비율은 67%였고, 시비 부담액은 33%였다. 기재부 예타도 이러한 국·시비 부담비율이 적용됐다. 또한, 기재부는 올해 책정된 예산 30억원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한 푼이 반영이 되지 않아 광주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탄 봉사 '나눔의 행복' 18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2동의 차상위계층 독거 노인 집에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과 북구사회복지행정 연구회 소속 공무원들이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북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공무원들은 회원 모금을 통해 2011년부터 3000장의 연탄을 취약계층에게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버스·트럭 속도제한장치 불법 조작  
정비업자·운전자 30명 검거 ▶6면

광주, 시간속을 걷다  
남선전기와 수기동 공구 거리 ▶18면

##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 선고

### 광주지법...대체복무 논란 예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종교인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아닌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7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로 병역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입영통지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모(22)씨, 또 다른 김모(21)씨에 대해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사죄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

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의 1심 판결이 처음이었고, 이후 12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최근 들어서는 광주·수원·인천 등의 법원에서 9건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유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입영 기피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찬반의견 대립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신의 직장' 금융 공기업, 호남출신엔 '그림의 떡'

### NCS 도입 후 수도권·영남 91%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기업 신입 사원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 출신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호남 젊은이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방식 도입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중 수도권과 영남 출신의 비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6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전 수도권 대학교 출신 비중이 67.7%였던 것이 NCS 도입 후 69.2%로 늘어났다. 영남권 대학 출신이 15.6%에서 21.6%로

늘어, 두 지역 대학 출신 신입사원 비중은 90.8%에 달했다. 금융공기업 신입사원 10명 중 9명은 수도권과 영남 두 지역에서 뽑혀, 출신지 불균형이 더 심해진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 송학산 높은정기 우리러 보며~  
● 일시 : 2016. 10. 23(일) 08:00~  
● 장소 : 모교 운동장  
● 전화 : (062)374-6685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차희준

www.jepa.kr/FTA

##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안내

전남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인이 FTA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컨설팅**  
FTA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사후관리까지 FTA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 교육**  
급변하는 최신 무역동향 및 FTA 정보를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FTA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설명회**  
최신 FTA 정보를 권역별(시·군·별) 산업특색과 FTA체결국별 특색을 고려하여 생생한 FTA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FTA활용지원 OK **1300**  
전라남도 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71**  
전라남도 지역경제과 **061-286-382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전라남도 JeollaNamdo